

# 자신만의 문체를 찾아가는 방법 연구

개요

서론

본론

1. 문체란 무엇인가
  - a. 문체의 정의
  - b. 문체의 중요성
  - c. 금성출판사를 중심으로 한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타난 문학 텍스트
2. 문체를 찾아야 하는 이유
3. 문체를 찾는 방법

결론

## 서론

본 논문은 작가가 문체를 찾아가는 방법 및 문체의 중요성을 제언하고자 하는 논문이다. 학교에 와서 책을 자주 읽었던 나는 여러 작가들의 문체를 보았는데, 어떤 작가는 진지한 주제를 유머러스하게 풀어내는 한편, 또 다른 작가는 별 내용 아니지만 문체를 활용하여 작품 내 긴장감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또 어떤 작가는 아름다운 문체로 일상을 담아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내기도 한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은 문체는 사건 하나하나 자세하게 묘사하며 독자들이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었다. 긴장감 넘치는 문체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작가로 ‘기욤 뭈소’와 일본 소설가 ‘히가시노 게이고’를 예로 들 수 있다. 위 작가들은 흡입력있는 문체를 활용하여 독자로 하여금 긴장감을 유발하여 책을 손에 놓지 못하게끔 만든다. 위 작가 외에도 많은 작가들이 자신만의 표현을 만들어내어 자신의 작품세계를 구축한다.

문체는 문학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문학에서 문체는 언어표현의 양식뿐만 아니라 예술적 본질을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기에 중요하게 인식된다(정현숙 - 국어교육, 문학교육과 문체론, 1995 : 96).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하고 심층적인 국어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통합적인 국어 역량을 갖추고, 국어 활동의 개선과 바람직한 국어문화 형성에 이바지한다.’라고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문학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문학을 향유하기 위하여 많은 작가들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성을 표현하고자 하며, 독자는 작가의 문체를 바탕으로 자신의 취향을 찾아 문학을 향유하기도 한다. 이처럼 문체란 자신을 깨닫고 표현하게 하는, 즉 개성을 보여주는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나는 자신만의 문체를 찾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문체의 정의를 찾아보며 학자마다 문체를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문학 속에서 문체가 왜 중요한 것 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 자신만의 문체를 찾는다면 어떤 도움이 되고 그렇다면 어떻게 문체를 찾을 수 있을지 고찰하고자 한다.

## 본론

### a. 문체의 정의

문학이라고 하면 언어, 시, 소설, 수필, 희곡, 셰익스피어, 일기, 평론 등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대부분이다. 최근 들어서는 영화, 컴퓨터 게임의 서사, 인터넷 기반 글쓰기까지 문학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문학은 특정한 형식하에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표현되는 예술을 가리킨다. 즉 문학은 삶의 가치 있는 경험을 상상력을 토대로 하여 언어로 짜임새 있게 표현한 예술이다.

문체는 문학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문체는 영어와 불어의 'Style', 독일어의 'Stil'에 해당하는 단어로 '양식'을 의미한다. 그러나 문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각 학자마다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 '문체는 곧 그 사람 자체이다'라는 뷔퐁의 정의에서 비롯하여 '문체는 곧 생각이다(구르몽)', '문체는 재능이다(샤토브리앙)', '문체는 사람의 특징이다(플로베르)', '문체란 바로 정신의 외모이다(쇼펜하우어) 등 많은 학자들은 문체에 대해 정의를 각기 다르게 내렸다. 우리나라에서도 '문체'에 대하여 정의를 내린 학자들이 있는데 많은 학자들 중 이인모는 '작가의 이적 감성에 적합하며, 개성이 잘 반영된 일정한 구조의 문장이다'라고 정의했고 박갑수는 '문장 작법과 작품을 빚어내는 양식이다. 자신의 특징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정의했으며 박영순은 '어느 한 시대의 작가 개인이나 사회에 의해 이루어지는 특정한 글의 형식적 특징 또는 '틀'이라고 정의했다. 또 김홍수는 문체를 '공통된 핵심 내용에 대해 다양하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언어 표현 양식'이라고 정의했으며 김영자는 '문장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형식적 특성'이라고 정의했다. 이화여대 석좌교수 이어령은 '문체는 외출할 때 옷을 입는 것과 같으며 문체는 주제에 따라 다 다르다'라고 하였다. 또 그 주제는 문장의 형식과 내용이 잘 어울릴 때 그 특성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렇듯 문체는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도구' 또는 '주제가 곧 문체' 이렇게 두 가지 시선으로 나뉜다. 문체로 주제가 표현된다는 건 똑같지만, 이는 철학과 문학의 선후 관계를 다루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도구'의 시선은 주제가 먼저 선택되고 그 후에 표현양식이 선택된다.

그러므로 '무엇을' 표현하느냐가 아닌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즉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는 차원이다. '주제가 곧 문체'의 시선은 문학이 삶의 실상을 전달해내는 작업이 되는 순간, 삶과 세계를 전달하는 문체는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아닌, "무엇을" 표현하느냐가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즉 무엇을 표현하고 있느냐는 차원이다. (선샤인 논술사전)

## b. 문체의 중요성

이런 다양한 정의들이 있는 것처럼 문체는 종류도 다양하다.

많은 사람이 문학을 만들어갈 때 주로 사용하는 문체는 많은 내용을 압축하여 함축성 있게 표현하는 간결체, 설명적인 어구를 많이 써서 문장의 호흡 긴 만연체, 힘 있고 활기찬 강건체, 문장이 온건하고 순하며 부드러운 우유체, 화려한 수식 없이 사실만 담담하게 표현한 건조체, 글을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수사법을 동원하는 감정적인 화려체. 이렇게 6대 문체로 많이 알려져있다.

문체는 작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소설이든 에세이든 실용서든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내는 매력적이고 설득력있는 문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문체는 문장의 개성적 특색을 뜻한다. 좁게는 문장의 장식, 글 쓰는 스타일을 뜻하며 넓게는 서술자가 대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인식 전체를 뜻한다. 또 우리말로로는 '글투'라고도 한다. 쉽게 얘기해 우리가 평상시에 말을 할 때도 사람마다 특징적인 말투가 있는 것처럼 글도 글쓴이 특유의 글투가 있는 것이 문체이다. 그렇기에 문체는 글쓴이의 개성에 따라 바뀌기도 한다. (중학생이 즐겨찾는 국어 개념 교과서)

하지만 문체는 자신 것의 문체만 있으면 되는 것도 아니다. 글의 장르에 따라 주제에 따라 적합한 문체를 사용하는 것이 글을 전달할 때 더 효과적이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문체를 찾는 법은 자신이 잘 아는 이야기, 직접 체험한 것, 자신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 결코 감춤이 없다는 허심탄회한 심정일 때 자연스레 나온다. 즉 잘 풀리는 이야기는 그 얘기에 걸맞은 문체가 절로 생긴다. 또 문체는 작가의 말투, 목소리, 말버릇에 의해, 작가가 만든 인물 들에 의해 결정된다. 사람들은 상냥한 말투, 무뚝뚝한 말투, 시크한 말투 등 여러 말투가 있다. 또 목소리를 낮게 깔아 조용하게 말하는가 하면 처음부터 목소리를 높여 듣는 사람의 혼을 빼는 목소리도

있다. 이런 특징을 바탕으로 문체가 많이 달라진다. 물론 작가의 말투는 주제, 재재, 독자의 층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또 문체는 문장에서 드러난다. 문장의 유형에 따라 매우 다양한 인상을 주기도 하고 길거나 짧은 문장 중 어떤 문장을 주로 쓰느냐에 따라 문체의 느낌은 달라진다. 또 부드럽고 섬세함을 보여주는 문장, 약하지만 자기의 주장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문장 그 외에 문장의 리듬, 속도, 표현법, 낱말의 선택 등을 문체의 특징에 따라 작가의 개성이 드러나기도 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문학을 접하고 때로는 내가 문학을 만들어간다. 문학의 영역이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할 수 있다. 문체가 문장에서 잘 드러나는 것처럼 문체는 문학을 만들어갈 때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가수가 자신만의 특유의 창법이 있는 것처럼 셰프가 자기만의 레시피가 있는 것처럼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자신만의 문체가 있어야 한다.

c. 금성출판사를 중심으로 한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타난 문학 텍스트

작품	작가	특징
봄.봄	김유정	1930년대의 농촌 배경으로 벌어지는 사건을 해학적으로 그려 낸 소설
완장	윤홍길	왜곡된 역사 현실의 부조리, 그것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노력을 그려 낸 소설
카메라와 워커	박완서	6.25 전쟁의 비극이 우리 사회와 개인의 삶에 남기고 간 상처와 의미에 대해 다루고 있는 소설
관동별곡	정철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한 정철이 금강산과 관동 팔경을 유람하며 느낌 감회를 노래한 기행 가사
아, 참 좋은 울음터로구나!	박지원	청나라를 여행하며 요동 지방의 광활한 별판을 보고 '울음'에 대해 새롭게 해석한 글

〈표-1〉 금성출판사에 수록된 문학 텍스트

〈표-1〉은 현재 (주) 금성출판사의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문학 텍스트를 정리한 내용이다. 5개의 문학 텍스트 중에 근·현대 문학작품은 3작품이 수록되어 있고, 근현대 이전의 문학 작품은 2작품 수록되어 있다. 현 고등학교 교과서 수록된 문학텍스트 중 현대문학 작품을 바탕으로 한 문체 학습활동과 그 외 문체를 반영한 학습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c-1. 현대 문학텍스트에 수록된 문체 학습활동

(a) 김유정 <봄봄>

2. 시점 및 문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 ① 이 소설의 한 장면을 다음과 같이 시점을 바꾸어 고쳐 썼다고 할 때, 이를 원래의 서술과 비교해 보고 이 소설에서 '나'를 서술자로 설정한 효과를 분석해 봅시다.

아픈 것을 눈을 꼭 감고 년 해라 난 재미난 듯이 있었으나, 불기착을 후려갈 길 적에는 나도 모르는 곁에 벌떡 일어나서 그 수영을 잡아챘다마는, 내 곱이 난 것이 아니라 정말은 아까부터 벌 뒤 울타리 구멍으로 점순이가 우리들의 곱을 몰래 엿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말 한마디 푹푹히 못 한다고 바보라는데 때까지 잠자코 맞는 걸 보면 짜정 바보로 알 게 아닌가. 또, 점순이도 미워하는 이까진 놈의 장인님 나곤 아무것도 안 되니까 막 때려도 좋지만 사정 보아서 수영만 채고(계 원래로 했으니까 이때 점순이는 껍 기했겠지.) 저기까지 잘 들리도록

“이걸 까셀라부다!”

하고 소리를 쳤다.

처음에 그는 눈을 꼭 감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 봉필이 그의 엉덩이를 걷어차자, 순간 벌떡 일어나 봉필의 수영을 잡아챘다. 부엌 뒤에서는 점순이가 이러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 그는 점순이가 보고 있음을 눈치채고는 아주 큰 목소리로 봉필을 향해 “이걸 까셀라부다!” 했다.

② 김유정 소설은 해학적 문체가 특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해학적인 성격이 드러나는 대목을 찾아 정리해 봅시다.

인물의 대화	- 빙모님은 참새만 한 것이 그럼 어떻게 얼 낳지유? -
서술자의 서술	- 실토이지 나는 점순이가 아춤상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는 오늘은 또 얼마나 밥을 담었나 하고 이것만 생각했다. -

3. 소설 <봄·봄>을 이루는 구성 요소 중 다음의 짝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설명해 봅시다.

① 문체와 시점:

② 주제와 계절적·공간적 배경:

이 작품의 저자는 김유정으로 해학적인 문체를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 작품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학습활동에서는 시점 및 문체에 대한 문제를 제시했다. 2번 문제는 ‘문체’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여, ①번 문제에서는 시점을 바꾸었을 때 나타나는 문학 텍스트의 변화와 그 효과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하였고, ②번 문제에서는 ‘해학적 문체’에 대해서 분석하고 문체가 주는 문학 작품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하였다.

이처럼 문제에 ‘문체’를 직접 명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문체가 소설 텍스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작품을 감상할 때 얼마나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는지 알려주고 있다.

(b) 윤흥길 <완장>

3. 다음은 이 작품을 쓴 '작가의 말'의 일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소설의 문학사적 전통을 탐구해 봅시다.

만약 독자들 가운데서 이 작품을 읽고 어느 정도 재미라는 걸 느낄 수 있게 된다면, 나는 그것이 작가의 계산된 의도에 따르는 재미라기보다는 우리네 시골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날까지 연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우리 민족 특유의 해학성에서 비롯되는 재미일 거라고 말하고 싶다. 쓰는 동안 내가 줄곧 의식했던 것은 바로 그 해학성이다. 우리의 고전 문학 속 곳곳에서 보배처럼 빛나던, 그러나 채만식(蔡萬植) 선생을 마지막으로 이제는 거의 끊기다시피 한 우리 문학의 해학적 전통이 지난해에 나를 내내 사로잡고 있었던 셈이다.

① 인물의 말과 서술자의 말 중에서 해학적인 성격이 두드러진 말을 찾아봅시다.

인물의 말	서술자의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사람아, 팔 완장 말고 기저구맨치로 사추리에다 차는 완장이라도 봤는가?"</li> <li>•</li> <li>•</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대육신 나무랄 데 없는 장정이 반겨총이로 편동편동 '먹고 대학' 다니면서 사시장청 말뼝이나 질러 쌓는 통에</li> <li>•</li> <li>•</li> </ul>

② 해학적인 표현과 문체가 어떠한 효과를 낳는지 다음의 측면에서 탐구해 보고, 우리 소설에서 해학적인 작품을 더 찾아봅시다.

인물의 성격	
주제 의식	
해학적인 작품	

위 작품의 저자는 '윤흥길'로 절도 있는 문체를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 작품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학습활동에서는 작가의 말을 바탕으로 문학사적 전통을 탐구해보는 문제를 제시했다. 3번의 ①번 문제에서는 인물의 말과 서술자의 말을 해학적인 성격이

두드러진 말을 찾는 문제를 제시해 인물의 말에 나타나는 해학적인 문체가 작품 속에서 중요하고 한국 문학 속에서도 빈번하게 등장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①번 문제에서 해학적인 문체를 알려주고 끝내지 않고, ②번 문제에서 해학적인 문체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낳는지 탐구하고 우리 소설에서 해학적인 작품을 더 찾아보는 문제를 제시했다.

이처럼 해학적인 문체와 효과를 찾아보는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해학적인 문체가 한국의 유머로 웃음을 통해 함께 웃으며 글의 흥미를 높이는 효과를 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한국적인 문체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볼 수 있도록 문제를 설정하였고, 문체가 한국의 정서를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c-2. 현대 문학텍스트 외 수록된 문체 학습활동

(a) 박지원, <아, 참 좋은 울음터로구나!>

**3. 이 작품에 나타난 참신한 발상을 중심으로 수필의 개성에 대해 탐구해 봅시다.**

① 만약 자신이 수필 속 '하늘과 땅 사이의 특 트인 경계'를 만났다면 그 기분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간단하게 작성해 봅시다.

② ①을 바탕으로 수필을 '개성의 문학'이라고 말하는 까닭을 파악해 봅시다.

위 작품의 저자는 연암(燕巖) 박지원으로 '연암체'라는 자신만의 문체가 있을 정도로 문체가 확고하다는 특징이 있다. 실제로 박지원은 조선 정조 때의 문장가, 실학자로 불릴 만큼 문장력이 뛰어났다.

이 작품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학습활동에서는 작품에 나타난 연암체를 중심으로 수필의 개성에 대해 탐구하는 문제를 제시했다. 3번의 ①번 문제에서는 작품 속 한 구절을 보여주며 자신이라면 그 기분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작성하는 문제를 제시했다.

①번 문제를 통해 학생들은 작가의 개성을 발견할 뿐더러 자신의 생각을 자신만의 개성있는 발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문제를 통해 공감성을 이끌어 내어 연암 박지원의 문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신만의 문체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②번 문제에서는 ①번 문제를 바탕으로 수필을 개성의 문학이라고 말하는 까닭을 파악해보는 문제를 제시했다. ②번 문제를 통해 학생들은 문학에서 자신만의 개성이 중요한 요소임을 깨달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문체는 문학 속에서 자신의 개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b) 오병훈, <지갑>

1. <지갑>의 내용과 표현을 확인해 봅시다.

① 이 수필에 담긴 작가의 경험은 무엇인지 정리해 봅시다.

② 발상과 표현 면에서 이 수필이 지닌 특징을 찾아보고, 그 효과에 대해 정리하여 발표해 봅시다.

발상과 표현	
효과	

2. 이 수필과 <아. 참 좋은 울음터로구나!>를 비교하며 교술 갈래의 특징에 대해 탐구해 봅시다.

① 이 두 작품은 교술 갈래에 속합니다. '교(敎)'와 '술(述)'의 의미를 바탕으로 두 작품의 공통점을 찾아봅시다.

② 이 두 작품의 형식상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고, 수필을 가리켜 '무형식의 형식'이라고 하는 이유를 밝혀 봅시다.

위 작품의 저자는 오병훈으로 지갑이라는 사물의 본질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성찰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작품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학습활동에서는 수필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①번, ②번을 나누어 작품의 내용을 더 알아보고 다른 작품과 비교하는 특징을 탐구하는 문제를 제시했다.

①번 문제에서는 작품에 담긴 작가의 경험을 정리하고 작품이 지닌 특징과 효과들을 정리하는 문제를 제시했다. 이 문제를 통해 학생들은 작가의 경험, 작품이 지닌 특징과 효과들을 정리하며 작품 속에 드러난 작가의 문체를 찾아 볼 수 있다. ②번 문제에서는 <아 참 좋은 울음터로구나!> 작품과 비교하며 교술갈래의 특징을 탐구하고 ‘무형식의 형식’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문제를 제시했다. ②번 문제를 통해 학생들은 허구적 사건이 아닌 실제 경험을 전달하고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며 교훈성을 지닌 글을 의미하는 교술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두 작품을 비교하며 일기 형식을 담은 <아 참 좋은 울음터로구나!> 작품과 사물을 통해 이야기하는 에세이 형식을 담은 <지갑> 작품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만의 문체가 있어야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만큼 문학 속 문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자기자신의 문체 찾아가는 법

2장에서 문체의 정의와 문체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 교육의 문체 학습방법에서는 해학적인 문체와 수필에서 보여지는 개성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만, 글을 쓸 때 자신의 개성을 찾아갈 수 있는 명확한 문체학습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자기 자신의 문체를 찾아가는 법을 알아보려고 한다. 대부분 문체를 찾는 방법을 물어보면 책을 많이 읽거나 필사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 이런 방법들도 모두가 알고 있는 기본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된다. 수학을 공부할 때도 여러 공식을 알고 있어도 공식에 대한 기본개념이 없으면 문제를 못 푸는 것처럼 책을 읽는 것과 필사를 하는 것도 자기 자신만의 문체를 만들어 갈 때 아주 중요한 기본기가 될 수 있다.

중국의 송나라에 정치가이자 문인이었던 구양수는 글을 잘 쓰려면 ‘다독, 다작, 다사랑’을 해야 한다고 했다.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독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문체를 보고 자신을 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하는 것이다. (고전 독서법)

본 장에서는 문체를 자신의 스타일로 만들어가는 몇 가지 방법을 알아보고, 문체를 가지는 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 (1) 독서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으면 똑똑해진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던 우리는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책을 어떻게 읽는 지 잘 모른다. 책을 많이 읽는 것은 좋지만 책을 다 읽고 난 뒤 아무것도 기억에 남지 않았다면 그것은 시간낭비라고 할 수 있다.

정조는 “독서는 체험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참으로 정밀히 살피고 밝게 분별하여 심신으로 체득하지 않는다면 날마다 수레 다섯 대에 실을 분량의 책을 암송한다 한들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라고 말했다.(정조이산어록, 독서)

독서는 책을 읽는 이의 단순한 문자 판독이 아닌 글쓴이와 읽는 이와 의 간접적 만남이며 그 만남은 책이라는 작품을 매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사소통이라고 말할 수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독서 <중학생을 위한 국어 용어사전>) 이렇듯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글쓴이를 나타내는 문체가 중요한데 나만의 문체를 찾기 위해서 책을 읽을 때는 남의 문체를 받아들이고 나의 문체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그 책의 작가는 어떤 문체를 사용하고 있고 어떤 표현을 하며 문장의 구도는 어떠한지 어떤 비유를 사용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이렇게 책을 읽었다면 이제 나는 내가 쓰려고 한 글의 주제와 알맞게 어떤 문체, 표현, 문장의 구도, 비유가 잘 어울리고 나의 의도를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 (2) 필사

필사는 많은 문학인이 사용하는 문체 개발 방법 중 하나이다. 필사를 많이 할 경우 자신만의 문체를 찾는 것을 넘어 독자적 글쓰기가 가능해진다. 유명한 문학인들은 필사의 과정을 거쳐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윤동주는 시인 백석의 시집을 필사했다고 하였고, 소설 ‘엄마를 부탁해’를 쓴 신경숙도 난장이가 쓰아올린 작은

공을 필사하면서 문체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렇듯 필사는 문체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필사를 하고 나서 기억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손과 팔만 아프다면 문체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했을 뿐더러 시간을 낭비했다고도 할 수 있겠다. 필사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우선 필사를 하려면 그 책에 대해 조금 아는 것이 좋은데, (1)에 명시한 깊은 독서를 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독서 후, 책을 다 읽었다면 필사를 시작해야 한다. 필사를 하면서 문장 안에서 쓰인 단어들을 음미하며 곱씹어야 한다. 왜 이곳에서 이런 단어를 썼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면서 필사를 해야 한다.

### (3) 어휘력 향상

책을 읽고 필사를 하다보면 모르는 단어, 안다고 말하기엔 애매한 단어들이 나타난다. 풍부한 어휘력은 단어의 정확한 뜻을 알 수 있게 해주고, 문장과 문단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게 돕는다. 문맥을 명확히 알고 맥락을 파악하는 것은 글을 읽는 데에 있어 사고력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문체를 만들어 내고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정약용은 귀양지 강진에서 자기 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무릇 독서라는 것은 도중에 뜻을 모르는 글자를 만날 때마다 넓게 고찰하고 세밀하게 연구하여 그 근본을 파헤쳐 글의 전체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독서 [讀書])

요즘은 인터넷에서 국립국어원과 같은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고, 인터넷을 활용하여 국어사전을 빠른 시간에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점을 이용하여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즉시 찾아 배우는 것이 좋다. 적절한 곳에서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독자에게 아주 또렷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 또 하나의 의미에 대한 여러 가지의 단어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문장을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자신만의 문체가 될 것이다.

#### (4) 서술과 묘사

서사는 이야기의 흐름을 나타내며, 이것을 기술하는 것이 서술이다. 또한 묘사는 이야기의 공간을 보여주는 문학적 기법이다. 이 두가지는 적절하게 배합되어야 한다. 하나만 등장해서는 문학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없고, 교대로 균형을 잡아가면서 펼쳐져야 완성된 문학을 보여줄 수 있다. 즉 의식의 흐름과 장면의 묘사와 대화와 혼자 생각 등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야 된다. 서술을 중시하는가, 묘사를 중시하는가에 따라 문체는 확연히 달라진다.

#### (5) 반복적 학습

문체를 찾아가는 것이 한번에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무엇을 하든 잘하고 싶고 내것으로 만들고 싶다면 반복학습이 필요하듯이 자신만의 문체를 찾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반복학습이 필요하다. 위에 알려준 내용을 다 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하다보면 어느새 자신의 문체를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 결론

지금까지 문체를 자신의 스타일로 만들어가는 몇 가지 방법을 알아보고, 문체의 중요성을 강조해보았다. 본 논문은 많은 책을 접하면서 작가마다 다른 문체와 이에 따른 여러 효과들을 보며 어떻게 하면 작가가 자신만의 문체를 찾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하였다.

서론에서 문체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유와 문학에서 문체가 왜 중요한지 선행연구를 통해 이야기하였고 본문에서는 문학과 문체는 무엇이고 학자마다 문체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학교에서는 문체를 어떻게 가르치고 학습자들은 어떤 가르침을 받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문학은 삶의 가치 있는 경험을 상상력을 토대로 하여 언어로 짜임새 있게 표현한 예술이며 문체는 스타일이고 무엇을 표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또 문체는 학자마다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도구' 또는 '주제가 곧 문체' 이렇게 두 가지 시선으로 나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금성출판사를 중심으로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타난 문학 텍스트를 통해 문체를 반영한 학습활동을 연구했으며 이를 통해 현재 교육의 문체 학습방법에서는 글을 쓸 때 자신의 개성을 찾아갈 수 있는 명확한 문체 학습 방법에 대해서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많은 문학을 접하는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문체 속 자신만의 개성 있는 문체로 문학을 만들어가보는 것은 어떤가? 우리는 문체를 통해 문학 속에서 나를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으며 문학 활동을 이해하고 느끼고 즐길 수 있을 것이다.